

# 2010년 오리사료 생산동향과 전망



홍 성 수 차장  
한국사료협회

## ◎들어가는 말

지난 10년간 오리산업의 약진이 눈부시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2008년 오리산업의 생산규모가 1조 1천544억원으로 완전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1991년 보다 5천200%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에 따라 1인당 소비량 역시 2001년 1kg 정도에서 2008년도

에는 1.75kg으로 늘어났다.

오리사료 생산량 또한 2001년 243,770톤에서 2008년 374,709톤으로 53.7% 증가(한국사료협회 회원사 생산량 기준)하여 오리산업의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다. 2010년 들어서는 그 성장세가 타 축종을 압도하면서 국내 오리산업의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으며 배합사료산업 또한 오리사료 생산량 증가가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정도로 최근 구제역을 비롯한 암울한 현실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오리사료 생산동향과 향후 전망을 통해 국내 오리산업의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가능해 보고자 한다.

## ◎오리산업 성장추이

먼저 지난 10년간 오리산업의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사육 농가수는 1999년 1만2천673농가에서 2008년 5천 192농가로 60%의 농가가 줄어들면서 산업의 전업화가 이루어졌고, 사육수수의 경우 1999년 478만7천207수에서 2008년 970만2천215수로 103%의 증가를 기록하였다.(표 1 참조)

이러한 증가세는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고병 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

【표 1】 10년간 국내 오리산업 성장 추이

년도	농가수(호)	사육수수(수)	도축수수(천수)	소비량(톤)	1인당소비량(g)
1998	8,820	3,167,214	16,299	-	-
1999	12,673	4,787,207	23,600	-	-
2000	12,986	5,133,511	26,637	-	-
2001	12,845	6,715,554	30,866	48,281	1,020
2002	11,679	7,823,542	37,695	48,708	1,070
2003	9,987	9,017,280	30,889	38,912	850
2004	8,484	8,265,580	29,230	35,379	720
2005	8,921	8,388,747	20,717	45,879	970
2006	8,456	9,386,190	30,560	59,933	1,230
2007	7,184	10,513,308	42,187	76,818	1,520
2008	5,192	9,702,215	48,414	85,156	1,750

(출처 : 한국오리협회)

루어낸 실적으로 실제 2008년 HPAI 발생전인 2007년 사육수수는 1천51만3천308수로 사상 최초로 1천만수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사육수수 성장세의 기저에는 폭발적인 오리고기 소비량이 있다. 즉, 오리고기 전체 소비량은 2001년 48,281톤에서 2008년 85,156톤으로 76%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1인당 소비량 역시 2001년 1,020g에서 2008년 1,750g으로 72% 증가하였다.

### ◎2010년 오리사료 생산동향 및 전망

오리고기 소비증가는 2010년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오리 도압실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바 2010년 3월 누계 오리 도압 실적은 한국오리협회 통계를 참고하면 전년 동기대비 무려 177.1% 증가하였다. 이러한 오리고기 소비 및 사육수수 증가에 따라 최근 오리사료 생산증가세는 과히 눈부실 정도로 타 축종사료 생산증가세를 능가하고 있다.(표 2 참조)

먼저 2010년 4월 누계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하였는데 축종별로 살펴보면 젓소용을 제외한 전 축종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월(3월)과 비교해 볼 경우 양돈은 2.8% 감소하였고, 비육용은 2.1% 감소하여 구제역 전파에 의한 사육심리 위축과 그에 따른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 있는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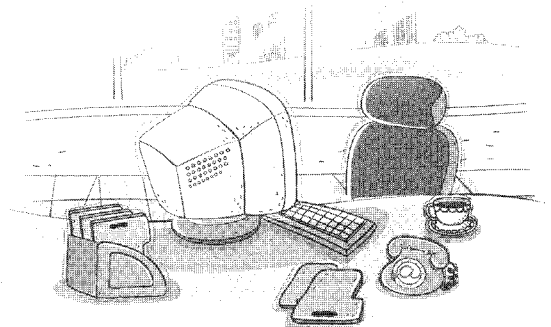
그에 반해 2010년 4월 오리사료 생산량은 51,353톤으로 전월대비 8.8% 증가하여 구제역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양계용 사료의 전월대비 생산증가율 4.5%를 압도하고 있다.

### ◎맺는말

21세기의 참살이(welling-being) 바람은 오리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즉, 불포화 지방산에 의한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와 훈제 등 다양한 요리방법의 개발, 오리고기 식당의 대중화 등으로 이제 오리산업은 기존 5대 축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당당한 국민가축으로 자리매김한 느낌이다.

이에 배합사료 업계 또한 오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오리사료를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다.

오리사료 생산의 폭발적 증가세는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오리산업 또한 그동안의 영세성을 벗어나 국내 축산업과 국민식품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정진(精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2】 2010/2009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교

(단위 : 톤)

구분	2010.1~4(A)	2009.1~4(B)	A/B(%)
양계	1,500,693	1,402,789	107.0
양돈	1,823,052	1,717,682	106.1
낙농	431,938	440,191	98.1
비육	1,526,425	1,351,660	112.9
오리	184,104	126,928	145.0

(출처 : 한국사료협회)